

성공적인 인천AG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심사보고서

2014. 07. 24(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07. 21

나. 제안자 : 박승희, 이용범 의원(찬성자 9인)

다. 회부일자 : 2014. 07. 21

라. 상정일자 : 2014. 07. 24(제21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박승희 의원
- 검토보고 :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민 300만명 도래를 앞두고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의 안전욕구 충족과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에 의한 안보 위협 증대 등 인천경찰에 대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지역적으로 경찰의 선봉에 서서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인천경찰청장에게 있고

- 인천AG 안전업무와 관련해 유관기관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기
이나 현재 1급 이상인 유관기관장들과의 직급 격차로 인천경찰청장
의 지원요구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번 국가적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천경찰청장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격상된 인천경찰청 조직체계는 경찰내부의 전문성을 살린
운영과 명품치안 서비스를 인천시민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도시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에 크게 기여할 것임.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임

나. 주요골자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관기관과
의 원활한 협력체계 마련과 인천시민에 대한 보다 높은 치안 서비
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내 치안 인프라 확충 및 경찰역량 강화를 위
하여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격상하도록 건의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제3항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령에 의하여 경기도 지방경
찰청장은 2003년 12월에,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2012년 1월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바 있음.
-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보다 상대적으
로 인구수가 많고 지역면적이 넓어서 치안수요가 많으나, 우리시

1)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및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 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421호)

의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 광역시도로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서해 접경지역인 지역적 특수성으로 질 높은 치안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음. 더구나, 불확실한 남북정세로 인하여 치안의 중요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에는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로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갖추어나가고 있으며, 공항, 항만, 화력발전소, LNG 기지, 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또한, 9월로 다가온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인천지방경찰청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의 직급 상향에는 이견이 없음.
- 다만, 국제적 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경찰청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청장 교체 등 조직변화가 염려되는 바, 시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안정성에 저해되는 사항은 없는지와 직급상향의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청장의 직급이 상향될 경우 치안서비스 및 조직운영 측면에서 변화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신영은 위원>

- 2014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시기적절 하다고 판단.

<유일용 위원>

- 인력 증원 사항은?

⇒ 우선, 조직체계 변화가 필요함. 현재 2부 체제에서 3부 체제로 바뀌며

세분화 하여서 운영하게 됨. 인력 증원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음.

- 치안감은 2급 상당, 치안정감은 1급. 부시장이 1급으로 균형 형성. 치안 담당부서로서 지위와 격, 인력 증가 등으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
- 지난해에도 신청했는데 심의과정에서 탈락된 사례가 있는가?
⇒ 건의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음.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차준택, 유일용, 허준, 이영훈, 이용범 위원
-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 성공적인 인천AG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 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1부. 끝.

- 성공적인 인천AG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인천경찰청장 직급 상황 : 치안감⇒치안정감)

[대표발의 : 박승희 의원]

의안 번호	35
----------	----

발 의 년 월 일 : 2014. 7. 21.

발 의 자 : 박승희·이용범 의원
(찬성자 9인)

1. 주 문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마련과 인천시민에 대한 보다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내 치안 인프라 확충 및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격상 하도록 건의함

2. 제안이유

- 인천시민 300만명 도래를 앞두고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의 안전욕구 충족과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에 의한 안보 위협 증대 등 인천경찰에 대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지역 적으로 경찰의 선봉에 서서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인천경찰청장에게 있고
- 인천AG 안전업무와 관련해 유관기관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기이나 현재 1급 이상인 유관기관장들과의 직급 격차로 인천 경찰청장의 지원요구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번 국가적 행사

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천경찰청장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격상된 인천경찰청 조직체계는 경찰내부의 전문성을 살린 운영과 명품치안 서비스를 인천시민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도시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할 것임.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임

3. 이 송 처 :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4. 첨 부 :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1부.

- 성공적인 인천AG 대비와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

인천경찰 치안역량 강화 건의안

(인천경찰청장 직급 상황 : 치안감⇒치안정감)

인천은 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거대 관문도시로 인천시민 300만명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인천의 치안 현실은 시민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입국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치안 수요가 전국 최고의 서울, 경기권에 인접하여 치안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인력이나 치안역량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위기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또한,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 등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서해 5도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40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의 장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고 내실 있는 치안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특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때이지만 인천시장과 인천지검장의 차관급 직위와 부시장 1급, 국정원 인천지부장 1급이라는 직위 체제하에서는 각 기관장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인천경찰청장의 요구가 손윗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이전에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을 2급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치안정감은 전국적으로 5명으로 경찰청 차장과 경찰대학장을 제외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는 서울과 경기, 부산 3곳뿐입니다.

격상된 치안정감 체계는 경찰내부의 전문성을 살린 조직운영과 치안 인프라를 확장시켜 인천시민에게 명품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도시 이미지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시민의 안전과 지역안보 특수성, 더 나아가 국가적 행사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화두 앞에서 경찰의 선봉에 서서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인천경찰청장의 위상을 높여 한 단계 더 높은 치안서비스를 선보일 때입니다. 인천의 지역발전과 함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맞는 치안역량을 겸비할 수 있도록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격상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4. 7. 24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